

개야도~연도 해안길 개설 추진

군산시, 섬 지역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 통한 도서 정주여건 개선 추진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섬 지역 교통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안길 개설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개야도 해안순환도로 개설에 나섰다. 개설되는 도로는 폭 4.0m 길이 420m로,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6억4,0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8,000만원씩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섬 지역 교통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안길 개설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일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섬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야도 해안순환도로 개설은 관광객들에게도 큰 편의를 제공해 개야도를 찾는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개야도에 이은 연도 해안길 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어업활동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해안길 개설 길이는 92m에 총 사업비는 4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3억2,0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000만원씩 투입된다. 연도 해안길 개설사업 역시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도리 일대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입을 꾀하고 있다.

특히 두 사업 모두 제4차 섬 발전 신규사업(특수상황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개야도와 연도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어업활동과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최종적으로는 도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야도와 연도의 해안길 개설사업은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방문객 유입 증가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맞손

익산시, 사업 발굴·공간정보 인재 양성·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 체계 구축

익산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가 지난 7일 익산시청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와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종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체계적

인 스마트도시 조성과 디지털 트윈(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검증 기술) 등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간정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및 취·창업 지원과 정보 교류, 기술 자문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익산시는 지역 현황에 맞는 특화 모델 발굴을 비롯해 국가공모사업 등 다

양한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협약은 익산시가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특색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제2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모집

군산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인구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군산시 제2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작년 제1기 시민참여단이 육아·돌봄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면, 이번 제2기 시민참여단은 생애주기별 각 세대의 대표단으로 꾸려나갈 예정이다”라면서 “군산시는 이번엔 선정된 시민참여단과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저출생에 대한 현실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선발되는 제2기 시민참여단은 6월 28일~12월 27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격월로 인구정책 관련 정기회의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제안, 시행 중인 인구정책 관련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기간은 6월 5일~18일까지며 모집인원은 분야별로 상이하하다. 임신·출산·양육·교육 분야 5명, 청년 분야 3명, 고령친화 분야 2명을 모집할 예정

이며, 분야별 50% 미만 접수시 재공고한다. 반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후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구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기 시민참여단의 제안으로 추진된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가 얼마 전 성황리에 진행되어 15팀 중 9커플이 성사되었으며, 하반기에 한 번 더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동국사, 군산을 알리다'

군산시,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 인기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되면서 동국사, 군산을 알리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최고의 보존은 활용이다라는 가치 아래 전통문화유산에 깃든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체험·답사·공연의 형태로 풀어내는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후원하고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전북역사문화교육연구소) 주관·주최로 진행된다.

군산시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가유산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3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난 3일 첫 순서로 진행된 동국사, 얼마만큼 알고 있니?는 초·중학생, 사회적 약자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모듬별 현장 체험학습 및 노작 활동을 통해 동국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두 번째로 진행된 '동국사에서 흥이 난다' 프로그램은 10월까지 이어지며 동국사 일대에서 군산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린다. 군산사와 동국사는 해설이 있는 공연·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사찰에 대한 친근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동국사, 군산을 이야기하다'는 군산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국사 소장 문화유산을 활용해 원도 심 일대 골목길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9월 하순부터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도보 탐방과 함께 각각의 장소에 담긴 역사적 가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신청 문의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역사문화교육연구소 ☎(010-5940-6186)로 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동국사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사찰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시민이 만드는 익산 여행' 출발

시민들이 익산 곳곳의 매력을 발굴하고 여행코스를 만드는 '시민이 만드는 익산 여행'이 출발을 알렸다.

익산시는 8일 익산역 앞 광장에서 '시민이 만드는 익산 여행' 출정식을 진행했다. 출정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코레일 본부장을 비롯해 시민 20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익산시는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4월 '문화도시 삼삼오오' 사업을 진행해 테마가 있는 익산 여행코스를 개발할 100개팀을 모집했다. 이 중 참신성과 특별함, 흥미, 관심도, 기획안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0팀을 선정했다.

참가팀 중 '맛있는 성지순례' 팀은 MSC투어팀의 퀴미숙 씨가 시민대표로 출정식포를 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팀의 익산 여행 기획자들은 6월 한 달간 익산 곳곳을 여행하며 완성도 있는 여행코스를 만들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온열질환 주의 예방수칙 실천 당부

익산시보건소가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는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익산시 온열질환자 수는 2022년 17명, 2023년 44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폭염에 장시간 노출 시 탈진, 오심,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하면 생명이 지장을 볼 수 있어 예방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열탕하고 밝은색 가벼운 옷 입기 △ 더운 시간대(오후 12~5시) 야외활동 자제 및 시원한 곳에 머물기 △ 야외출시 모자 또는 양산으로 햇빛 차단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익산시, 2024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익산시가 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육군 35사단 익산대대장, 익산소방서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기관장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여름철 기상전망 및 자연재난 대책과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 군 훈련계획 보고가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이에 따른 각 기관의 협조 사항과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입무 수행을 논의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현을 시장은 “국가방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7월 화랑훈련을 시작으로 8월 을지훈련, 10월 천무훈련까지 중요한 훈련들이 예정돼 있다”며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축으로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합방위협의회는 민·관·군·경의 협의회로 지역 위기 상황에 나 국지도발에 대비해 유기적인 통합방위체계 운영을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